혁신의 두 총수, 상의·무협회장에… 통합 리더십 '기대감 ⬆'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23일 서울상의 회장에 최태원 추대
ESG 확대 등 재계 상생·화합 기대
김범수·김택진 등 부회장단 될 듯

무역협회 차기 회장에 구자열
15년만에 무협 지휘 기업인 탄생
허창수 회장, 전경련 연임 유력

최태원 SK그룹 회장. /SK

구자열 LS그룹 회장. /LS그룹

국내 주요 경제단체가 세대교체를 완성한다. 재계가 다시 힘을 모을 수 있게 될지 관심이 커진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상의는 23일 정기 총회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수장으로 공식 추대할 예정이다.

서울상의 회장은 관례적으로 대한상의 회장을 겸임해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4일 대한상의도 정기 총회를 열고 최 회장을 대한상의 회장으로도 추천하게 된다.

대한상의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 4대그룹 총수를 회장으로 맞이하게 됐다. 당초 재계를 이끌어왔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정농단' 이후 주춤한 사이, 대한상의가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 단체로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된 셈이다.

재계는 최 회장이 SK에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해왔던 것과 같이 대한상의에서도 ESG 경영을 확대함과 동시에, 중소기업까지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상의를 이끌며 재계 전반의 상생과 화합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상의는 김범수 카카오톡 의장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IT 기업인들도 부회장단으로 새로 불러들였다. 최태원 회장을 주축으로한 전통적인 재계뿐 아니라, 새로 부상하는 IT 기업까지도 포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태원 새 회장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 것이면서 IT 기업의 약진에 따른 재계의 요구도 반영된 결과다.

무역협회도 구자열 LS그룹 회장을 새로운 리더로 맞이하며 재계 통합의 또다른 구심점을 지켜나가려는 모습이다.

구 회장은 2006년 이후 오랜만에 무역협회를 지휘하게 된 기업인이다. 무역협회는 그동안 정부 관료 출신에 회장직을 맡겨왔지만, 최근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기업인 출신에 조직을 맡겨야한다는 의견에 구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특히 구 회장은 2013년부터 LS그룹 회장을 지내왔지만, 형제가 9년씩 경영을 해온 전통에 따라 올해 말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전경련은 26일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으로, 허창수 GS건설 회장 연임이 유력하다. 일단은 안정을 찾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경제단체들은 앞으로 다양한 이슈에 대처해야하는 상황에서 협업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해 '공정경제 3법' 개정과 관련해서 별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면서 무기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상황, 일각에서는 경총과 전경련을 통합해야한다는 등 경제 단체 영향력을 확대해야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2020년 9월말 현재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단위 : 조원, %)

투자형태	부동산1)	SOC	기업투자2)	유동화3)	지수연계4)	항공선박 등	기타	합계
펀드 등	23.6	18.1	8.5	5.6	4.6	4.8	1.6	66.8
대 출	0.5	1.9	0.8	-	-	0.4	-	3.6
합 계	24.1	20.0	9.3	5.6	4.6	5.2	1.6	70.4
(비 중)	(34.2)	(28.4)	(13.2)	(8.0)	(6.5)	(7.4)	(2.3)	(100.0)

1) 부동산 개발·임대·매매 등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2) 구조조정·인수합병을 위한 대출, PEF, Hedge Fund, 벤처·비상장·IPO 기업에 대한 투자 등
3) CLO, CDO, CBO 및 동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수익증권 등
4) 주가, 금리, 환율, 원자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펀드 및 수익증권(주로 원금보장형)

보험사 해외 대체투자 부실징후 2700억

금감원, 작년 9월말 해외 대체투자
자산 1087조의 6.5% 70.4조 달해
수익성 악화 가능성 자산도 1조원

보험사들의 해외 대체투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이미 2000억원 안팎의 손실이 발생한데 이어 공사중단 등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자산도 2700억원을 웃돈다. 임대료 감액 등 투자조건이 바뀌면서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는 자산은 1조원에 달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70조4000억원이다. 총자산 1087조원의 6.5% 수준으로 주로 직접 투자가 아닌 펀드 매수 등의 간접 방식으로 투자했다.

대체투자 유형은 부동산 관련 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가 각각 24조1000억원(34.2%), 20조원(28.4%) 규모며, 기업 인수·구조조정 관련 투자가 9조3000억원이다.

투자대상은 오피스가 10조9000억원(15.5%) 규모며 ▲발전·에너지 8조5000억원(12.1%) ▲항공기·선박 4조9000억원(7.0%) ▲PEF 등 인수금융 4조9000억원(7.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투자지역은 미국이 26조8000억원(38.1%)으로 가장 컸으며 ▲영국 6조5000억원(9.2%) ▲프랑스 2조7000억원(3.8%) ▲기타 유럽 6조8000억원(9.7%) 등 주로 선진국에 분포했다.

특히 오피스·호텔·복합시설 등에 투자하는 해외 부동산 투자(24조1000억원)의 63.4%는 미국에 집중됐다.

신규투자는 지난 2018년 15조5000억원 이후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는 6조6000억원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크게 줄었다.

투자 잔액의 68.3%인 48조1000억원이 2030년 이후 만기가 도래한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로 단기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다만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해외 대체투자는 4조4000억원이며, 이 중 2조원이 부동산 관련 투자로 임대·매각 여건 악화시 투자금 회수(Exit) 리스크가 존재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부동산·항공기 투자의 펀드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미 일부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은 총 1944억원 규모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주 부도, 공사지연·중단 등 부실 징후가 있는 자산은 2721억원 수준이다. 또 금리인하 및 만기연장, 임대료 감액 등 투자조건 조정으로 당초 기대수익 대비 수익성이 악화된 자산은 1조원 규모다. 투자조건 조정은 코로나19 영향이 큰 오피스 및 상가, 호텔 등 부동산 관련 투자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미 기자 smahn1@

"코인가격 높아 보인다"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 값 요동… '머스크 발언' 관심집중

머스크 테슬라 CEO 발언 이틀만에
비트코인 급등세 다소 수그러들어
"발언과 관련없을 수 있다" 분석도

가상화폐(암호화폐) 가격 급등을 불러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의 발언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옹호론을 펼친데 이어 최근 비트코인의 급등세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다소 가격이 높다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가상화폐 관련 발언이 나올때면 가격 등락이 발생하면서, 그의 발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캐피털 CEO와의 트위터 대화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높은 것 같다"란 입장을 밝혔다.

시프가 "금이 비트코인과 현금보다 낫다"라는 견해를 밝히자 머스크는 댓글을 통해 "돈은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피하게 해주는 데이터일 뿐"이라며 "결국 돈도 다른 모든 데이터와 같이 지연과 오류가 있다"고 답했다. 또 그는 "시스템은 두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그렇기는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반응에 외신들도 머스크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는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1조달러를 넘어서자 한 말"이라고 전했으며, 경제지 포브스는 "가상화폐를 끌어올린 머스크가 가격을 경고했다"고 평가했다.

머스크의 반응이 나온 지 이틀만에 비트코인의 급등세가 다소 수그러들었다. 이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오후 2시 19분 기준 비트코인은 6384만원에 거래 중이다. 또한 같은 시각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도 1개당 6376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주말동안 국내 거래소에서는 6500만원대,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5만8000달러(약 6429만원)를 기록한 뒤 소폭 하락한 채 거래 중이다.

다만 가상화폐 가격 급등락이 머스크의 발언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각) 포브스에 따르면 독일 블록체인연구소 레나르트 안테 연구원은 지난 8일 머스크의 트윗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말 중 6개 트윗)에 따른 가상화폐 가격·거래량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이중 2개의 트윗에서는 유의미한 거래량 변화가 발생했으나 나머지 4개의 트윗에서는 관련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안테 연구원은 "머스크의 트위터 활동 중 4개는 이전의 시장 상황에 따른 반응일 가능성이 높으며, (트윗 게시 이후에) 중요한 가격 반응이 없었다"며 "나머지 두 사건은 (트윗에 따른)반응이 아닌 독립적인 행동으로 보이면서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하나의 트윗이 잠재적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1100억달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 다른 트윗은 비슷한 가치를 지워버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석 기자 ysl@

셀트리온, 연매출 1.8조 '사상최대 실적'

전년比 64% 급증… 영업익 88% ⬆

셀트리온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셀트리온은 22일 경영실적 공시를 통해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액 1조849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63.9% 급증한 규모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8.4% 증가한 712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38.5%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4987억원, 영업이익 16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3%, 4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바이오시밀러 제품군 확대로 공급량이 늘어난 것과 제1공장 증설 시설의 생산 효율성이 개선되며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주력 제품군의 경우 유럽시장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램시마 52.8%, 트룩시마 38%, 허쥬마 15.9%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견조한 점유율을 유지했으며, 미국시장에서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인플렉트라(램시마 미국 수출명) 11.8%, 트룩시마 19.8%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주요 제품군이 고르게 성장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올해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글로벌 공급 노력과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CT-P17) 등 후속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신규 공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글로벌 생명공학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